

위기의 지역 농업

활로를 찾자

(17) 광양 애호박 재배 김선주씨

비닐 씌운 '인큐 애호박' 병충해 막고 품질 높여



김선주(51)·김춘선(47) 부부가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에 자리한 비닐 하우스에서 '인큐베이터 애호박'을 수확하고 있다.

9월·12월 두번 파종 생산, 출하·수확량 조절

온돌식 지중 난방·3중 보온 비닐 난방비 줄여

"강변에 자리해 토질이 사질토여서 배수가 잘되고 농사짓기에 일조 조건도 좋아 가장 추울 때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애호박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전북 진안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이 율율 흘렀던 소리처럼 200여km를 훑기차게 달리다가 광양만으로 흘러들기 전에 가쁜 숨을 고르는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인공적인 강둑이 만들어지기 전 넓은 강물에 실려온 퇴적물이 수백년간 거듭 쌓인 까닭에 이곳 물녘은 오곡이 자라기 좋은 기름진 땅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자연조건을 살려 현재 이곳은 시설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김선주(51)·김춘선(47) 부부는 이곳에서 국민 채소로 할 수 있는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 1982년 400여평에서 오이 농사를 시작했다가 18년전부터 일손이 적게 드는데다 병충해에 강한 애호박으로 주 작목을 바꿨다.

◇한발 앞서가는 애호박 농법=초기에는 관행적인 농법에 따라 애호박을 재배했지만 인근 뜻을 같이하는 농가들과 '전월 중앙작목반'을 구성, 처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게 됐다. 이에 따라 7~8년전에는 태극무늬가 새겨진 깁을 써우는 '태극 애호박' 방식으로 재배하다가 4년전부터는 '인큐베이터 애호박'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인큐'는 호박꽃이 수정된 후 4~5일 후에 한뼘 길이의 비닐을 일일히 씌워 수확시기가 되면 코팅한 것처

'국민 채소' 애호박

비타민 A·C 풍부…치매 예방·두뇌 개발 효과

우리나라 식단에서 애호박처럼 다양하게 요리되고 친숙한 재료도 흔치 않을 것이다. 돼지고기를 숭송 썰어넣은 애호박 찌개는 물론 부침개, 탕, 나물, 볶음, 즙임, 무침, 국수고명 등 '야방의 강조'격으로 쓰임새가 다양하다.

'본초강목'에는 애호박의 효능에 대해 '보증의기(補中益氣)'라고 했는데, 소화기 계통(특히 위와 비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더해준다는 의

럼 비닐속에 꽉 차게 하는 방식이다. 겨울철에는 봄지를 씌운후 10~11일, 봄철은 5일후에 수확이 가능하다.

이러한 재배방식은 육질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단맛이 늘어나는 대신 익은 맛은 적어지며 병충해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씨 부부를 비롯해 애호박 재배 농가들은 기존 재배법에 만족하지 않고 남들 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창의적인 농법을 찾아냈다. 타 농가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같은 시기에 똑같이 꽂아서 수확하는데 비해 오사리 애호박 농가들은 파종시기를 9월과 12월, 2차례로 나누는 방식을택한 것이다.

전작(前作)은 9월말에 파종해 10월 20일께 옮겨심어 한달후부터 수확을 시작해 이듬해 6월에 끝마치고, 후작(後作)은 전작에 비해 두달늦은 12월 초에 파종해 이듬해 1월 중순에 옮겨심은 후 3월초부터 수확에 들어가 6월에 끝마치게 된다. 이렇게 한 두렁에서 전작과 후작을 나란히 함으로써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공백기간을 줄이고, 작물의 노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6월에 애호박 수확을 마무리하는 것은 비닐을 걷어낸후 땅을 깊이엎고 물을 대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다. 조생종 '원광벼'를 심어 6월중순에 모내기를 하면 9월 중순에 수확이 가능하다.

"애호박을 매년 한자리에서 재배하면서 수확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연작피해를 피하기 위해

서는 벼농사가 제일입니다. 애호박을 재배한 토양에 물을 체움으로써 염류축적을 없애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피해도 줄일 수 있죠"

◇이장단장 말ا 사회활동 활발=현재 15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작목반은 6㏊(6천116㎡)(2만여평)에서 애호박을 재배, '햇빛 쌈샤인 애호박'이라는 브랜드로 농협에 공동출하하고 있다.

아무래도 한겨울철에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이다 보니 난방문제가 화두(話頭)이다. 김씨 부부는 실내 기온에 따라 열고 닫는 개폐식 3중 보온비닐 설치와 함께 보일러로 작물을 재배하는 평밀으로 파이프를 따라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는 온돌식 '지중(地中) 난방' 시스템을 갖춰 25~28℃ 온도를 유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3겹 비닐하우스 이전에는 벽짚으로 만든 거리를 아침에는 제거하고 저녁에는 덮는 '쉼파 하우스'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김씨 부부는 폭 15m, 길이 100m의 400평 규모 비닐 하우스 2개동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원에 800평, 매실 3천평, 브로콜리 2천200평, 벼농사 6천여평등 복합영농을 실천하고 있다. 한 작목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목을 병행함으로써 연중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꾀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총매출은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30여년 가깝도록 한눈 팔지 않고 흙을 일군 덕분에 농협중앙회 주관의 새농민상 본상(2001·2006년)을 수상하는 영예도 뒤따랐다.

새농민회 전남부회장과 진월면 31개 마을이장을 대표하는 이장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선주씨는 장래 희망에 대해 "열심히 농사짓고 지역을 흥보하는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리 24kcal→260kcal 등으로 각각 증가한다.
전남지역에서는 광양, 나주 등지에서 586농가(208.5 ha)가 애호박을 재배, 연간 1만1천796t를 생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당 하나의 모방할 수 없는
특허 기술, 척추 건강을 위한
인자 선택 - 바우인닥터**

**바우인닥터는 올바른 척추 보호 뿐만 아니라
이미 흐트러진 체형도 바로 잡아줍니다.**

**척추의 질환은 앓아있는 사람
바우인닥터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판매처: 남광주시거리 안보기구 063)225-5100

www.baubuindukti.com

**2009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무상보조금 60% 신청하세요!**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비 면제로 금융지원 확대 예상
내 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그린집 100만원 쟁금사업 참여하세요!

그린집 100만원 쟁금사업은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비 면제로 금융지원 확대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택 전기 사용료 절감과 함께 고급화되는 주택을 즐길수!

설치량	설치비
설치량 4㎾~5㎾	설치비 103,000원/㎾
설치비 19,070원/kg	평균 80% 이상 절기요금률 절감!

COSMOENG | 휘센스모아엔지 **T. 080-7272-7000**